

비교

제시문들을
(‘주제’의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고려대 2번문제 전반부
연세대 1번문제 전체

양자비교 문제

(1)



(2)



Q. (1) 과 (2)를 비교하시오.

양자비교 문제

(1)



(2)



Q. (1) 과 (2)를 비교하시오.

[비교기준] (1)과 (2)는 사과와 색깔이 상반되어 있다.

두 사과와 익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 (1)은 빨간 사과다.

[근거] 익었기 때문이다.

[결론] 반면, (2)는 파란 사과다.

[근거] 덜 익었기 때문이다.

양자비교 문제

예제

제시문 (1)과 (2)를 비교하시오.

고려대 2012학년도 수시 오전 축약 변형

제시문 (1) **빨간사과**

간섭은 단기적으로는 목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자율성만이 사회 진보의 원리로서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결론] 간섭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간섭은 사회 진보의 원리인 자율성을 방해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양자비교 문제

제시문 (2) 파란사과

(2)-가

“우리들이 하구픈 대로 내버려 두면 될걸 왜 하필 여기 끌어다 가둬 놓구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야. 너희를 가둬 두다니? 부모 없는 너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이러는걸. 너희 하나하나가 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말야.”

“가둔 게 아니면 가시철망은 뭇 하러 쳤어요?”

“그건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야경은요? 밤에 우리가 어쩔까 봐 그걸 지키는 게 아네요?”

“그것 역시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막자는 거다.”

종호는 계속해서 이 소년에게 무슨 말이고 한마디 해 줘야 할 걸 느끼며,

“좀 전에 너는 너희들이 하구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달라구 했지?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 하구 싶은 대루 해선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내가 이 팔을 찢리었을 때 일을 얘기하지. 마취약 기운이 없어지니까 수술한 자리가 어떻게나 쑤시 구 아픈지 모르겠어. 나는 참다못해 의사더러 진통제든지, 아픈 걸 없애지게 하는 약 말이야, 그렇잖으면 잠자는 수면제 라두 달라구 졸랐지. 나두 의학을 공부한 일이 있어서 그런 약을 함부루 써서는 안 된다는 것쯤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다못해 그런 거야. 물론 의사는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지. 내 편에서 보면 꼭 그 약을 썼으면 아픈 걸 잊겠는데 의사는 들어주지 않는단 말야. 그건 의사가 내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결국 날 위해서 그러는 게지.”

(2)-나

현대 국가는 사회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대표적 예로는 좌석 안전띠의 착용 강제를 들 수 있다.

안전띠 착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결론] 간섭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

[근거]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개인을 보호한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에게도 이익이다.

양자비교 문제

완성된 답안

[비교기준] 두 제시문은 간섭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결론] (1)에서 간섭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간섭은 사회 진보의 원리인 자율성을 방해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 반면, (2)에서 간섭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

[근거]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개인을 보호한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에게도 이익이다.

실제 합격자 답안

제시문 (1),(2)는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제시문 (1)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는 결론이다.

[사회 질서와 진보는 개인들의 자발적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간섭은 이를 방해하며 전체주의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2)는 [사회 발전을 위해 간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간섭이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듯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 보장,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Key Point 1 동의어치환!

애플이라고 써 있는 것을 사과라고 읽었듯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간섭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는 출제자가 일부러 말을 바꾸어 쓴 것이다.

Key Point 2 예화일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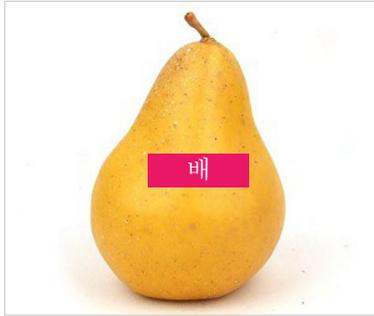
예화로 나오는 제시문은 무조건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하나의 메시지로 일반화 한다.

이 역시 출제자가 일부러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예화로 써놓은 것이다.

삼자비교 문제

제시문 (가)



제시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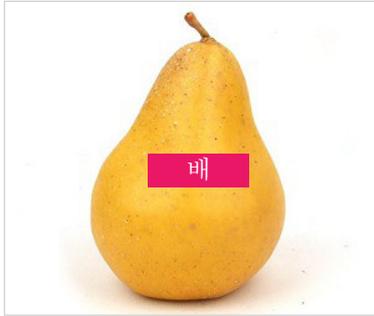
제시문 (다)



Q. 제시문 (가), (나), (다)를 '과일' 의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삼자비교 문제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Q. 제시문 (가), (나), (다)를 '과일' 의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과일이다. 하지만 과일의 종류 및 과일의 색깔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과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제시문 (가)는 배이다. 노랑고 까끌까끌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나, 다)는 사과이다. 빨강거나 파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와 (다) 역시 색깔을 기준으로 상반되어 있다. 이는 익은 정도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차이이다.

제시문 (나)는 빨간 사과이다. 익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파란 사과이다. 덜 익었기 때문이다.

삼자비교? 비교기준이 두개 나오는 이중상반관계

자비교? 비교기준이 세개 나오는 삼중상반관계

삼자비교 문제

예제

〈문제 1〉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연세대 2012학년도 사회계열

사과-배 구별법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누가 배인지 알 수 있다!

〈문제 2〉 개별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곡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번 문제에 (가) 혼자 나와 있으면 (가)는 배다.

2번 문제에 (가) 혼자 안 나와 있으면 역시 (가)는 배다.

제시문들이 모두 논설문 형식이기 때문에 ‘예화 일반화’ 는 없다

‘동의를 치환’ 에 따라서 풀어보자

삼자비교 문제

제시문 (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그리스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에는 이미 일찍부터 신앙과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오르페우스교의 열광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자 했다. 앞의 두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영혼과 재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종파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민족 전체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종파들만이 머리를 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민족이 이미 자체 내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친 무리 본능이나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동요 상태를 사람들은 흔히 윤리의 타락이나 부패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알이 성숙하여 껍질이 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상당 부분 같은 유형과 같은 색깔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만족되고 관찰되어야 할 반대의 요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꾸로 힘과 지배욕이 매우 강한 천성을 지닌 인물이 단지 종파에 국한된 미약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치는 경우, 이로부터 그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인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결론(논지)] 다수는 새로움의 보편화, 절대화를 거부해야 한다.

[근거] 새로움을 보편화하는 다수는 자체 내에 다양성을 상실한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한 다수이기 때문이다.

삼자비교 문제

추측 : (나), (다)에서는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하긴 할 것이다!

제시문 (나)

예술에서는 발전 대신에 항상 **독창**이란 것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 **독창**이란 것은 자기 완결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개의 예술의 세계는 제각기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 혼자서 완결되는 세계다. 그러면 **고전**과 **고전**과의 사이에 절단을 이어가는 것, 즉 예술의 역사의 비연속의 연속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결작** 아닌 것, 즉 범작이나 졸작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갈 필요에 직면한다. 예술사에 있어서 결작 아닌 것은 예술적인 전승의 수단이 된다. 예술에 있어서 전승은 결작 아닌 것을 통하여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류(亞流)라는 현상에서 들 수 있다. 아류란 **결작**의 모방이다. 모방은 흔히 결작을 모독하고 그것을 개악(改惡)한다. 그러면 아류란 결작의 파괴 지 그 전승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나, 전승이란 이러한 모독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람은 아류에 전승된 결작에 대하여 분명히 그 모독을 책(責)한다. 그러나 아류에 대한 이 비난 속에는 **결작**에 작(作)한 존경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하게도 모독을 통하여 그것의 존경에 도달하는 것은 종교에서 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배신자가 신을 모독했다고 신을 경멸하지는 않는 것을 잘 안다. 모독을 죄악이라고 느끼는 심리 속에는 항상 신에 대한 신성한 숭앙이 들어있는 법이다. 이 숭앙에 의하여 종교에서 사람들이 다시 신에게로 일부 접근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역시 결작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작에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결작 아닌 것은 **결작**과 **결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결론(논지)] 다수는 새로움의 보편화, 절대화시키고, 이를 후세에 전승한다.

[근거] 다수는 새로움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를 숭앙/존경한다.(절대화한다.) 따라서 아류를 만들어 새로움을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은 새로움과 새로움 사이의 매개가 된다. 즉 새로움의 전승 수단이 된다.

삼자비교 문제

제시문 (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해 명상할 때,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다시 지우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그는 마침내 문제의 해결책을 붙잡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는 희미한 빛에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래된 호기심이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던 어떤 거대한 개념을 한 사회가 정교하게 만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이 그러한 호기심, 예컨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이전에 말이다. 아니면 **한 사회가 야심적으로 꿈꿔온 거대한 정복**을 구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내의 인간 활동이 그 야망, 예컨대 증기를 이용한 생산기계, 운송수단, 항해수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말이다. 우선 사람들에게 제기된 문제가 온갖 모순적인 창안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떤 명료한 해석들이나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든다.** 이후로는 그것이 고정적인 기반으로 이용되면서 그 위에서 궁극적인 발전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보는 일종의 집단적인 성찰이다. 거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뇌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창안자들의 무수한 뇌 사이에서 모방 덕분에 생겨나는 연대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은 문자로 고정되어 거리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억의 바탕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개인의 뇌 속에서 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진보는 개인적 진보와 같이 두 가지 절차, 즉 대체와 축적을 통해 일어난다. 발견이나 창안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축적 가능하다. 그로부터 논리적인 투쟁과 논리적인 결합이 생겨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채택하고자 하며, 그것으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결론(논지)] 다수는 **새로움의 보편화, 절대화시키고**, 이를 후세에 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창조한다.**

[근거] 모방을 통한 집단지성의 연대활동이 진보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진보는 문자로 고정되어 시간, 거리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된다. 또한 이렇게 창조된 진보는 그 이전의 낡은 것을 잊게 하여 절대화된다.

삼자비교 문제

사과와 배를 가르는 기준 :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절대화 여부

사과의 색깔을 가르는 기준 :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창조 여부

1. 제시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정리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과일이다. 하지만 과일의 종류 및 과일의 색깔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2. 첫 번째 비교기준 먼저 과일의 종류를 기준으로
3. (가)의 입장 제시문 (가)는 배이다. 노랑고 까끌까끌하기 때문이다.
4. (나)의 입장 + 5. (다)의 입장 반면 제시문 (나, 다)는 사과이다. 빨강거나 파랗기 때문이다.
6. 두 번째 비교기준 하지만 제시문 (나)와 (다) 역시 색깔을 기준으로 상반되어 있다. 이는 익은 정도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차이이다.
8. (나)의 입장 제시문 (나)는 빨간 사과이다. 익었기 때문이다.
9. (다)의 입장 반면 제시문 (다)는 파란 사과이다. 덜 익었기 때문이다.

삼자비교 문제

사과, 배와 똑같이 써 보자!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행하는 역할에 대한 글이다. 이들은 각각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절대화 여부, 그리고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창조 여부에 대해 다른 논지를 보인다.

우선,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절대화를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다수가 새로움의 절대화, 보편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새로움을 절대화, 보편화하여 수용하는 다수는 자체 내에 다양성을 상실한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한 다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나, 다)의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화한다. 하지만 다수에 의한 새로움의 창조 여부를 기준으로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제시문 (나)에서 다수는 새로움을 절대화하며 이를 후세에 전승한다. 하지만 창조하지는 못한다.

다수는 새로움을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숭앙한다. 따라서 아류를 만들어 새로움을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은 새로움과 새로움 사이의 매개가 된다. 즉 새로움의 전승 수단이 된다.

반면 제시문 (다)의 다수는 새로움을 절대화하고, 이를 후세에 전승하며, 창조까지 한다.

(다)의 다수 역시 모방을 행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와 달리 모방을 통한 집단지성의 연대활동이 진보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진보는 문자로 고정되어 시간, 거리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된다. 또한 이렇게 창조된 진보는 그 이전의 낡은 것을 잊게 하여 절대화된다.

요컨대, (가)는 천재성을 가진 개인에 의한 새로움을 다수가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이러한 수용을 인정하며 다수의 새로움의 전승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나아가 (다)는 이러한 절대적인 수용을 인정하고, 다수의 새로움의 전승자로서의 역할도 인정하며, 다른 제시문들과 달리 다수의 새로움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렇게만 써도 이미 900자 넘는다! 합격가능한 답안임은 물론이다!